

정경이니까 놀라다,
유지명이니까 뛰겠습니다!

1다이창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동해시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다	더불어민주당	이창수	남	1968.6.23 (57세)	동해시의회 의원	북평고등학교 졸업	(현) 북평고총동문회부회장 (전) 동해문화원 감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2,482	12,868	해당없음	해당없음	9,614	5급 전시근로역 (백내장 좌안)	-	장남 육군 상병 제대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0	0	0	사기 보조금관리예관한범몰위반:벌금 1,500만원 (2020.08.20)
후보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동해시의회의원 활동을 하기 전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지인을 돕다가 생긴 일로서, 저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결과에 억울한 면이 많으나, 다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일 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신중히 처신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하는 이창수 행동하는 시의원

“현장의 소리를 정책으로! 진짜 시의원 이창수”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이창수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도전 끝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동해시의회의원이 되어
지난 8년간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출마하기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이동 약자의 불편을
몸으로 느꼈고 대리운전을 하며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처음 출마 당시에는 조직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짐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2년 만에 시의원이 되었고, 그날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의원이었습니다.

작은 민원 하나라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끝까지
해결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다섯 번째 도전이지만 마음은 처음과 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시의원, 시민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

저 이창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다 이창수



짐자전거를 타던 그 간절함으로, 다시 시민 곁으로!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저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전과 대리운전을 하며 시민의 삶을 몸소 체험했고, 짐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시민의 집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간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심부름꾼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동해의 더 큰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습니다.

첫째,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의정활동 공개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째**,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빈집 및 공실 상가 활용을 통해 머무르는 관광 동해와 죽은 상권의 부활을 이끌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 다변화와 전 시민 독서교육, 맨발걷기 건강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해외 교류와 농·어민 실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회유와 협박에는 더 강해집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의 상식과 양심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더 낮게, 더 가까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 다 이창수



시민의 꿈을 현실로, 행복한 변화의 시작 : 핵심공약



1. 의회의 위상 정립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 행정의 독주방지- 시민 권익신장
- 의정활동 내용 공개, 투명성을 확보,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
- 형식 배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

2. 동해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및 개방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 낚시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 조성, 바다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휴양 환경
- 가족형 휴식·체험 공간 확대, 누구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 야간경관, 편의시설 확충 -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편리한 관광 거점을 구축



3. 개방화장실 확대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민간 참여를 확대, 관리비 지원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확충
- 관광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

4. 노인 일자리 사업 다변화

“어르신 소득·자존감을 높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돌봄·문화형 일자리 확대, 어르신 연륜 - 사회적 가치로 환원 기회
- 관광 및 전통 해설형 일자리를 개발,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께 보람찬 일터를 제공



동해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약속, 이창수의 공간·교육 : 혁신공약

빈 공간을 경제·문화 거점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환경으로.
생각하는 도시 동해를 만듭니다.



주상복합 공실 상가 활용 — “죽은 상권에 활력을”



-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거점 조성
공공임대 상가 전환 및 복합문화 공유공간 활용으로 젊은 인재 유입 및 거리 활기를 도모하겠습니다.
- 상권 점유율 제고 및 방문 빈도 강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의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초기 부담 완화 정책

임대료 및 세제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시 빈집 활용 —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



- 체계적인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체계 마련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예술가 창작 및 이웃 소통 공간 조성
방치된 빈집을 예술가들의 공간과 공동시설로 변모시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동시설 확충

빈집을 활용한 임대사업으로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 시민 독서교육 확대 — “생각하는 도시 동해”



- 학교도서관 연계 교육 강화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토론 및 인문교육 활성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정착시켜 깊이 있게 사고하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하는 독서운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창수의 건강·청소년·민생공약

건강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글로벌인재양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 경제의 실질적인 동해를 가꿉니다.



해변 맨발걷기 건강도시 조성 - “여유와 건강”



- 누구나 편리한 맨발 걷기 인프라 구축
세족 시설과 편안한 휴식 공간 등 기초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 건강증진 및 관광 명소 육성
맞춤형 건강 캠페인과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건강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 일상의 여유,
건강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확대 - “글로벌 인재 양성”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및 해외 경험 제공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 실질적인 국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홈스테이, 현지 학교 교류, 글로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꿈꿀 수 있도록 -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꿀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어민 실질 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 청취”



- 판로 확대 및 소득 안정 지원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 생산기반 확충 및 현장으로 해결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지원

농어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지원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창수가 할 수 있습니다.”

“ 의회에서 소신 있게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예산 낭비를 막아내고, 집행부를 향해 질타할 수 있는 의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의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귀를 기울여 주는 의원, 바로 이런 역할은 강직하고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이창수가 할 수 있습니다. ”

- 동해시민 백현철 -

짐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시민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간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심부름꾼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동해의 더 큰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습니다.



이창수 약력

- 1968년생 (만57세)
- 삼화초등학교 졸업 (36회)
- 북평중·고등학교 졸업
- 제8·9대 동해시의회 의원 (현)
- 천곡동 주민자치위원 (전)
- 민주노동당 동해·삼척 사무국장 (전)
- 북평중·고총동문 초록장학회 이사 (전)
- 한살림협동조합 천곡매장 준비위원 (전)
- 민병희 교육감후보 동해시 유세팀장 (전)
- 최문순 도지사후보 동해연락소장 (전)
-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본 활동 (전)
-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본 활동 (전)
- 삼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 동해문화원 감사 (전)
- 동해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 (전)
- 북평고총동문회 부회장 (현)